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민 성 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초식동물의 이미지에 대한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최 은 진

# 초식동물의 이미지에 대한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민 성 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최 은 진

# 인 준 서

최은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우리 문명에 뿌리라고 할 만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류 역사에서 동물을 길들이고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 생존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었다. 인간은 동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동물 또한 고기와 가죽을 인간에게 제공함으로써 상호 보완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다.

본인은 우리 주변의 여러 동물 중 초식동물에서 대체로 공통적인 이미지를 느끼게 되었고, 그것은 온순함, 우직함, 담대함 등 정적인 이미지였다. 이것을 사회화로 인해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기에, 동물의 형상을 초상조각의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현대인의 부정적인 삶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이 논문은 초식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며 표현한, '기묘한 제의'라는 제목의 전시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총 3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장 서론에는 본인의 작품에 대해 연구 목적과 연구내용 및 방법을 설명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작품의 형성 배경을 서술하고 동물의 초상조각, 도조 기법, 받침대의 변주로 나누어 작품의 표현 방법을 분석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앞으로의 작품진행방향에 대한 연구 과제를 서술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2
1. 작품의 형성 배경 .....	2
1) 사회적 배경 .....	2
2) 초식동물의 이미지 .....	3
2. 작품의 표현 방법 .....	5
1) 동물의 초상조각 .....	5
① 정면성 .....	6
② 대칭성 .....	7
2) 도조 기법 .....	7
3) 받침대의 변주 .....	8
3. 작품 분석 .....	11
III. 결론 .....	37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산양, ceramic, wood, 600×1200×1200(mm), 2014 .....	11
【작품 2】 양, ceramic, wood, lights, wheel, 1300×1300×1600(mm), 2014 .....	15
【작품 3】 양 I, ceramic. wood, 400×400×1100(mm), 2014 .....	20
【작품 4】 라마 I, ceramic. wood, 370×370×1200(mm), 2014 .....	22
【작품 5】 알파카 I, ceramic. wood, 370×370×1100(mm), 2014 .....	25
【작품 6】 알파카Ⅱ, ceramic. wood, 370×370×1130(mm), 2014 .....	26
【작품 7】 염소 I, ceramic. wood, 370×370×1120(mm), 2014 .....	28
【작품 8】 염소Ⅱ, ceramic. wood, 370×370×1100(mm), 2014 .....	29
【작품 9】 라마Ⅱ, ceramic. wood, 500×400×1300(mm), 2014 .....	32
【작품 10】 알파카Ⅲ, ceramic. wood, 500×400×1300(mm), 2014 .....	33
【작품 11】 토끼, ceramic. wood, 370×370×1400(mm), 2014 .....	35

# I. 서 론

인간은 세상의 탐욕으로 인하여 제한된 삶이 반복되면서, 본성이 상실한 채 세상에 길들여져 살아간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초식동물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종류의 초식동물들은 인간에게 길들여지고, 가축과 고기를 제공하며 인간 삶에 많은 이로움을 주고 있다. 초식동물이란 녹색식물을 직접 섭취하는 1차 소비자로, 양적으로 풍부한 먹이 덕분에 서로 경쟁 하는 일이 적어 군집생활을 한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산업화된 사회 속의 인간 모습과 닮아 있다. 풍부한 식량과 자원, 부족할 것 없고 편리한 삶을 사는 현대인들은 자연스레 도시에서 군집생활을 한다. 여기에서 타인과의 경쟁구조와 제한된 삶에 염증을 느끼며, 스스로를 온순하고 의존적인 모습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의 위험을 직면하지 못한 채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초식동물의 모습과 같다.

본인은 현대인의 이러한 모습을 돌아보고 인간 본연의 참된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한다. 본성을 잃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초식동물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고찰하고, 동물 형상을 빌려 표현함으로써 현대사회와 인간의 모습을 재인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작품의 소재인 양 · 염소 · 라마 · 알파카 · 토끼 같은 초식동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다. 초식동물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도출해 내는 것을 시작으로, 초식동물과 인간의 연관성에 바탕을 둔다. 또한 작품 표현 방법으로 인간 초상조각 형식 중 두상 표현을 차용하여, ‘동물 초상조각’으로 표현한다. 이것을 정면성과 대칭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점토의 질감 표현연구와 도조기법, 받침대의 변주로 작품을 분석한다.

## II. 본 론

### 1. 작품의 형성배경

#### 1) 사회적 배경

우리는 사회의 질서 속에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혹은 지도자로서 그 사회가 유지되도록 질서와 체계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계층구조가 형성되는데, 지배계층은 피지배계층에게 제한적인 삶을 요구해왔다.

한 사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은 그 사회 또는 내부의 특정 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양식에 따라 움직이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성격유형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그들에게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바의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되어야만 한다. 외부적 힘은 내부적 강박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것은 인간 에너지의 특수한 요소에 의해 성격의 한 특성으로 유입되는 것이다.<sup>1)</sup>

위의 내용에서 보면 사회구성원 누구도 특정인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 하진 않지만, 어떠한 유형을 필수로 습득해야한다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사회화로 인해 인간은 자연스레 도시에서 군집생활을 하게 되었고, 타인과의 경쟁구조가 생겨났다. 하지만 점차 이러한 생활에 염증을 느끼며, 도피의 방법으로 상생과 공존이라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초식남(草食男)’이라는 용어로, 일본의 여성 킨리니스트 후카사와 마키(深澤眞紀(ふかさわ

1) D.리스먼 저서, 권오석 옮김, 「고독한군중」, 홍신문화사, 1994, p.57

まき), 1967-)에 의해 생겨났다. 이 용어는 기존의 남성다움을 상실한 남자, 마치 은화하게 풀을 뜯는 초식동물처럼 온순하고 착한 남자를 뜻한다. 그들은 수동성과 소극성, 개인주의로 사회에 무관심하며 도전정신과 결단력이 없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그들은 착한 인상과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직면하고 도전하기 보다는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순응한다. 이는 포식자(육식동물)가 설치하는 세상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초식동물의 모습과 같다.

현대사회는 구속과 지배에 의해 짜여진 거대한 울타리이다. 인간은 그 속에서 본성을 상실하고 굳어진 사고방식으로 피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길들여지며,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한 마리의 동물에 불과하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에게 길들여져 살아가는 초식동물의 생활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인간은 사회 질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 규범, 교육 등에 의하여, 원시성을 억제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초식동물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 2) 초식동물의 이미지

초식동물(草食動物)은 생산자인 녹색식물을 직접 먹는 1차 소비자이며, 육식동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군집생활을 한다. 풍부한 먹잇감으로 인해 본성이 순하고 경쟁심이 적다. 그러하여 예로부터 초식동물은 인간의 손에 길들여지며 많은 부분을 함께 하였다. 영국의 우생학자 프란시스 골턴(Francis Galton, 1822-1911)은 동물을 사육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튼튼해야 한다.
2. 천부적으로 사람을 좋아하여야 한다.
3.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적어야 한다.
4. 유용성이 높아야 한다.
5. 번식이 자유로워야 한다.
6. 관리가 편하여야 한다.

이러한 초식동물은 인간이 농사를 짓고 정착함에 따라 울타리 안에서 먹을 것을 얻고 보호 받으며 사육되어 왔다. 가축화된 동물들은 인간이 제공하는 인위적인 생활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인간과 오랜 시간 함께하기 위해 우열관계를 잘 유지하며,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렇듯 각 동물의 특성은 인간에게 유용하게 작용하여 가축화 되었고, 그로 하여금 제한적인 삶을 부여받게 되었다. 결국 동물들은 인간이 만든 울타리 속에서 야생의 자유로운 습성과 원시성을 상실한 채, 지배되는 대상으로 인간의 이로움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초원 위에 한가로이 풀을 뜯는 동물들을 모습을 볼 때가 있다. 동물이 풀을 뜯는 행위는 스스로 생존에 의한 본능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느끼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떠올리는 시각적인 어떤 것, 그것을 우리는 대상의 '상징적 이미지'라 한다.<sup>2)</sup> 어떠한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를 토대로 대상을 재해석하고, 표현하는 데에서는 각자 투영하고자 하는 이미지들이 다르기 마련이다.

본인은 초식동물들이 인간에 의해 사육되는 과정에서 온순함, 우직함, 담대함 등을 느낄 수 있었고, 희생, 제물, 본성의 속박, 제한 등의 상징적 이미지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본인은 작품에서 사회로 인해 본성을 잃고, 자연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는 존재로 초식동물을 표현했다. 그리고 그들에

---

2) 상징 - 인간은 사회가 유지되도록 질서를 만들었고, 체계화 과정에서 상징을 만들었다. 우리는 이러한 상징을 수용하며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상징은 문화 형성의 수단이자 방법이며, 인간 의식 흐름을 표출시켜 고정하는 감각적 수단이 된다. 감각적 표현을 통해 정신적인 표현에 그 의미가 있다. 감각적 표현에는 언어, 예술 등의 영역이 있으며, 예술 표현은 정신적인 내용과 의미가 하나의 구체적이고 감각적 표현에 연결되어 작품 내에 속하는 것이다.

게서 도출해낸 본성의 속박과 희생, 제한 등을 상징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형상화 하고자 한다.

## 2. 작품의 표현 방법

### 1) 동물의 초상조각

초상조각은 인물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특정 인물묘사 대부분의 형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두상(頭像), 흉상(胸像), 반신상(半身像), 전신상(全身像)등으로 나누어진다.

역사 속에 초상조각은 유명 인사들의 얼굴이나 모습을 후세로 전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용모 모방이 아닌 영원불멸(永遠不滅)한 관념의 표상으로, 그 인물의 개성과 정신세계를 작품에 담기 위해 힘썼다. 그리고 이것은 작가 개인의 창작 활동이 아닌, 특정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창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를 표상하는 의미로 역사적 기록이 되었다.

동물도 각각의 개성과 정신세계를 포함하고 있고, 인간과 가장 유사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초상조각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본인은 초상조각이 추구하는 특정인물의 기념비 요소를 차용하여, 동물의 두상표현을 중심으로 나타낸다.

작품은 초식동물 중 양 · 염소 · 라마 · 알파카 · 토끼를 선정하여, 그들의 두상을 표현하고, 보는 이가 해당동물을 정확히 연상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묘사한 것을 ‘동물 초상조각’이라 한다.

신체의 부분을 소재로 한 작품은 암시적 형태를 띤다면, 얼굴의 표현은 보다 직접적이다. 얼굴은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눈의 형태, 눈썹, 피부 결, 피부색상 등을 표면에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내면의 감정을 드

러낸다. 얼굴 기관 중,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처럼 안과 밖의 소통 수단이 된다. 특히 동물의 눈은 음성이나 동작보다도 의사표현에 큰 역할을 한다.

본인 작품에서는 동물얼굴의 기관 중 눈에 대한 표현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정면성과 대칭성의 특징을 가진다.

### ① 정면성(正面性)

일종의 초상사진을 찍듯, 대상 정면에 작가가 생각하는 모든 관념을 표현하여 시선을 집중시킨다. 정면성은 동세가 생략된 구조로 대상을 기록하는데 있어 가장 풍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동세를 억제하고 정면성을 강조한 조각 작품은, 엄숙성과 초월성을 지닌 고대 초상조각을 떠올리게 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동물두상은 동세가 최대한 절제된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또한 생동감을 위주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작품과는 다르게, 동작의 다양성을 배제해 딱딱하고 경직된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초식동물에게서 도출해 낸 상징적 이미지를 작품 속에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우직함, 담대함, 본성의 속박, 제한 등의 이미지는 수직, 직립성(直立性)의 특징으로 나타내는 동시에, 동물 형태와 결합하여 작품의 기본틀이 된다. 이는 관찰자가 대상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대상이 가지는 여러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다.

오늘날의 정면성이란, 시각적 접근 보다는, 순수이성으로 접근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조각가는 보여 지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가 존재한다고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만드는 것이다.<sup>3)</sup>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정면성은 대상을 인식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관찰자는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 대상의 시선이나 표정 등을 보고, 몇 초안에 그 대상을 파악한다. 이때 정면성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3) 월간미술 저서,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 ② 대칭성(對稱性)

본인 작품에서는 중심축을 기준하여 강한 좌우대칭 구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동물의 눈, 코, 입 그리고 귀, 뿔, 털 등이 양쪽에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이것은 기법과 질감으로도 나타내어진다.

대칭은 작품 설치 방법에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각각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는 배제하고, 일률적인 방법으로 작품을 배열하고 있다. 작품과 좌대의 관계, 그리고 작품과 작품 사이의 공간을 일정한 가격으로 배치한 이 배열은 감성이 배제되어 강한 시각적 효과를 제공한다. 이러한 특징은 균형과 엄숙, 정적인 느낌과 함께, 사회가 추구하는 완벽함, 조화, 질서의식 등을 암시한다.

## 2) 도조 기법

점토는 수분과 주무르는 물리적인 힘에 따라 성형되며, 가소성과 점성에 의해 늘리고 깎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가능하다.

흙에 포함된 수분함량에 따라 부드러운 동물의 털을 표현할 수 있고, 뿔과 같이 딱딱한 느낌의 질감도 표현할 수 있다.

피부는 부드러운 차진 흙에서 시작하여 표면이 굳어지기를 기다린 후 표현해야 한다. 점토에 다양한 효과는 대상의 양감과 질감을 표현하기 좋은 소재이다. 이렇듯 점토를 직접 어루만지며 본래의 특성을 느끼고 분석해야만 원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회귀의 상징물로서, 흙이 생명의 질료로 표현된 장면은 여러 창조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 신화 중, 프로메테우스는 흙으로 남자, 여자, 동물을 만들어 냈고, 아테나는 흙으로 빚어진 상들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이렇듯 신이 인간 형상을 흙으로 빚어 생명을 불어넣었듯이, 점토는 생명과 본성을 나타낸다.

점토를 가마에 굽는 과정은 단순히 불을 지피는 행위가 아닌 작품을 위한

하나의 의식과도 같은 것이다. 【작품 1】 ~ 【작품 11】 에서와 같이 동물의 두상을 흙으로 빚어낸 후 가마 속에서 구워낸다. 이는 작품 제작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듯, 흙이 가진 불순물을 가마는 태워 없앤다.

장법(葬法) 중 하나인 화장(火葬)은, 영혼의 부정을 씻고 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인은 소성 과정을 통해 정화된 대상의 순결함을 말하고자 한다. 즉 흙(점토)을 이용해 만든 두상 원형(본성)을 가마에 굽는 행위 (정적, 관조적으로 인간의 정신을 불어넣는 것)를 통해 흙 속에 잠든 생명을 깨우는 느낌을 준다.

사용된 점토는 주로 흑색과 미색(米色)으로, 두 색이 나타내는 이미지 또한 큰 역할을 한다. 흑색의 경우 단단함과 우직함을 드러내며, 미색은 돌아가고 싶은 본성을 나타낸다.

### 3) 받침대의 변주

동물의 두상이 놓여있는 받침대는 작품의 좌대역할을 한다. 좌대란 기물을 받쳐놓는 대를 말하며, 예술에서는 현실공간과 그 위에 놓여있는 작품을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작품을 감상자의 시선에 맞춤으로써 감상을 돕고 높이, 크기, 재질 등에 따라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부수적인 중요한 장치로 사용된다.

이러한 좌대의 용도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변주되어 사용되었다.

일례로 공공미술에서는 좌대를 사라지게 하여 공간과 작품의 경계를 허물고 보는 이의 접근성을 높이며 직접적인 소통을 유도했다. 좌대에서 내려와 설치된 조각은 좌대에서 전시될 때보다 직접적으로 읽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코메티의 작품에서도 가느다란 조각상 아래에 크고 중량감 있

는 형태의 좌대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커다란 좌대는 바짝 말라있는 인체와 상반되는 느낌을 주며 작품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조각에서의 좌대는 일반적인 역할과는 뚜렷이 구별되며, 작업의 일부로 변주되어 사용 된다.

본인의 작품에서도 좌대는 독자적인 형태로 변형시켜 다음과 같은 의미의 세 가지 요소를 부여했다.

첫째, 동물의 두상이 놓여있는 좌대는 희생양을 신에게 올리는 제단(祭壇)<sup>4)</sup>의 의미를 가진다. 희생양은 올리는 이의 재산 정도에 따라 흠이 없는 수양, 숫염소 등이 바쳐졌다. 이러한 의식은 신에 대한 존경과 기원 공경을 표하며 희생물로 하여금 인간의 죄를 없애고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제사의식을 상징하는 것이 제단이다.

이렇듯 본인의 작품에서 좌대는 제단을 의미하며, 인간 삶의 죄를 씻고 내적 치유의 의미로써 제의성을 가진다.

둘째, 박스형 단상은 연극이 펼쳐지는 무대의 후면과 측면을 나타낸다. 우리 사회와 역사 뒤에 감춰진 수많은 사건을 작품 정면에 드러내고자한다. 또한, 【작품 2】에서 사용된 움직이는 바퀴와 전구(빛)는 연극의 무대 제작 형식을 차용하였으며, 작품간 스토리 구성을 바탕으로 배치하여 작품에 연극성을 부여한다.

셋째, 동물이 지닌 형태와 환경을 암시한다. 즉 본인의 작품에서 대부분의 좌대는 네 개의 지지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동물의 네 다리를 의미한다. 또한 【작품 11】에서 볼 수 있는 창살(감옥) 형태의 좌대는 동물을 가두고 있는 울타리(우리)를 의미하며, 인간의 속박으로 인한 제한적인 삶을 표현한다.

---

4) 제물(祭物)을 바치기 위하여 다른 곳과 구별하여 마련한 단(壇) [제단(祭壇), 네이버 어학 사전]

이렇듯 여러 요소에 의해 만들어진 좌대는 직선과 각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동물의 두상과는 상반된 느낌을 주고 작품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전시장 또한, 하나의 특수한 환경으로 연출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작용의 형식을 취한다.

### 3. 작품분석



【작품 1】 산양, ceramic, wood, 600×1200×1200(mm). 2014



【작품 1】의 부분

## 【작품 1】 산양[山羊]

작품크기 : 600×1200×1200(mm)

작품재료 : ceramic, wood

제작연도 : 2014년

### 제작방법

- 1) 점토로 코일링(coiling)기법<sup>5)</sup>을 이용해 전체적인 형태를 만든다.
- 2) 얼굴의 세부적인 묘사를 한다.
- 3) 뿔게 만든 흙물을 이용해 동물의 털 부분을 붙인 후, 중간 건조가 되면 털과 뿔 부분의 묘사를 한다.
- 5)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킨다,
- 6) 건조된 기물을 가마에서 850℃ 온도로 1차 소성을 한 뒤 2차 소성은 1250℃ 온도에서 환원소성(還元燒成)한다.
- 7) 나무판과 각재 크기에 맞게 자른 후 조립한다.
- 8) 표면을 사포로 정리하고 나무 코팅제를 발라 마무리 한다.

### 작품설명

양의 초상조각이 받침대 위에 놓여있다. 양은 순박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좀처럼 다투는 일이 적어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뿔과 이빨은 자신에 이로움을 위해 사용될 뿐 남을 해치는 일에 사용되지 않는다. 타자의 죄를 대신해 신에게 올리는 제물로 희생양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작품 속에 양은 사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제물(희생양)을 나타내며, 사회의 속박으로 희생과 정신적 풍요를 상실한 현대인을 뜻한다.

---

5) 손으로 점토를 둥글고 길게 말아서 겹겹이 쌓아 올리는 과정.

받침대는 연극 무대제작 요소를 차용한 것으로, 동물의 형태를 나타낸다. 네 개의 지지대는 네 다리를, 그 위에 올려있는 판은 몸을 의미한다. 또한 제물(희생양)을 올리는 제단의 의미를 가진다.

흑색에 가까운 점토는 단아함과 우직함을 느낌을 주며, 양의 온화함과 덤덤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작품 2】 양, ceramic, wood, lights, wheel, 1300×1300×1600(mm), 2014



【작품 2】의 부분

## 【작품 2】 양

작품크기 : 1300×1300×1600(mm)

작품재료 : ceramic, wood, lights, wheel

제작연도 : 2014년

### 제작방법

- 1) 점토로 양의 털 부분을 제외한 원형을 만들고, 석고로 거꾸집을 만든다.
- 2) 석고 외형 틀에 흙 판을 밀어 넣어 내형을 떠낸다.
- 3) 얼굴 묘사를 한 후 묽게 만든 흙물을 이용해 동물의 털 부분을 붙인 후, 중간 건조가 되면 묘사를 한다.
- 4)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킨다,
- 5) 건조된 기물을 가마에서 850℃ 온도로 1차 소성을 한 뒤 2차 소성은 1250℃ 온도에서 환원소성(還元燒成)한다.
- 6) 나무판과 각재 크기에 맞게 자른 후 표면을 사포로 정리하고 나무 코팅제를 발라 마무리 한다.
- 7) 마무리된 나무를 조립하고 소켓에 전구를 끼워 부착한다.

### 작품설명

양의 초상조각이 일정간격의 공간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양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무늬가 각각 다른 것은, 인간에 의해 개량된 가축을 나타낸다. 양쪽으로 늘린 두상은 사회의 제한적 삶을 강요받는 인간을 의미한다. 조명(전구)은 관찰자에 의해 꺼지고 켜진다. 이는 사회에 의해 인간의 삶과 본성이 조절되는 것을 말한다. 바퀴의 사용은 자연과 상반되는 요소로,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환경을 말하며, 작품 강조를 위한 부수적인 장치로 사용된다. 일정한 간격의 공

간은 동물이 인간에 의해 끌려가 생명 조절되는 도살장을 나타낸다. 이는 세상이 만든 틀 속의 인간 희생을 상징한다.



【작품 3~8】 ceramic. wood, 가변설치, 2014



【작품 3】 양 I , ceramic. wood, 400×400×1100(mm), 2014

### 【작품 3】 양 I

작품크기 : 400×400×1100(mm)

작품재료 : ceramic, wood

제작연도 : 2014년

#### 제작방법

- 1) 점토로 코일링(coiling)기법을 이용해 전체적인 형태를 만든다.
- 2) 얼굴의 세부적인 묘사를 한다.
- 3) 두 가지의 흙을 여러 비율로 섞어 다양한 톤의 흙물을 만든다.
- 4) 흙물을 이용, 동물의 털 부분을 붙인 후, 중간 건조가 되면 묘사를 한다.
- 5)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킨다,
- 6) 건조된 기물을 가마에서 850℃ 온도로 1차 소성을 한 뒤 2차 소성은 1250℃ 온도에서 환원소성(還元燒成)한다.
- 7) 나무판과 각재 크기에 맞게 자른 후 조립한다.
- 8) 표면을 사포로 정리하고 나무 코팅제를 발라 마무리 한다.

#### 작품설명

양의 초상조각이 받침대 위에 놓여있다. 양 두상에서 좌우대칭 구조가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귀는 양쪽으로 날개를 펴듯 펼쳐져 있다. 이러한 대칭 구조는 세상의 규칙, 규범, 제한을 나타낸다. 양의 표정은 지극히 온화하며 여유롭다. 이는 세상 속에 본성을 잃어, 위험조차 감지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털색은 전체적으로 흑색을 이루고 있으며, 아래쪽부터 밝은 미색이 올라오는 그라데이션(gradation)으로 표현하였다. 이 표현은 생명이 차오르는 느낌을 준다. 두상이 놓여있는 창살(감옥) 형태의 받침대는 동물을 가두는 율타리를 나타내며 인간 자유의 속박을 상징한다.



【작품 4】 라마 I , ceramic. wood, 370×370×1200(mm), 2014

## 【작품 4】 라마(Llama) I

작품크기 : 370×370×1200(mm)

작품재료 : ceramic, wood

제작연도 : 2014년

### 제작방법

- 1) 점토로 코일링(coiling)기법을 이용해 전체적인 형태를 만든다.
- 2) 얼굴의 세부적인 묘사를 한다.
- 3) 뿔게 만든 흙물을 이용해 동물의 털 부분을 붙인 후, 중간 건조가 되면 털과 뿔 부분의 묘사를 한다.
- 5)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킨다,
- 6) 건조된 기물을 가마에서 850℃ 온도로 1차 소성을 한 뒤 2차 소성은 1250℃ 온도에서 환원소성(還元燒成)한다.
- 7) 나무판과 각재를 크기에 맞게 자른 후 조립한다.
- 8) 표면을 사포로 정리하고 나무 코팅제를 발라 마무리 한 후 바퀴를 달아준다.

### 작품설명

라마의 초상조각이 받침대 위에 놓여있다. 라마는 인간에 의해 야생동물이 가축화되어 생겨난 새로운 종이다. 온순하고 호기심 많아 사람에게 쉽게 접근한다. 사회성이 강한 동물로 무리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경계하는 습성이 있다. 그리고 침을 뱉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다. 흥분했을 때나 공격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침을 뱉는다. 이러한 특징은, 사회에 대한 인간의 작은 반항을 의미한다.

박스형 받침대는 연극이 펼쳐지는 무대 뒷면과 측면을 나타낸다. 즉 사회 역사 속에 감춰진 수많은 사건을 정면에 등장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

첩을 달아 열어 볼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안쪽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무대정면, 즉 사회 속에 인간이 느끼는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나타낸다.



【작품 5】 알파카 I , ceramic. wood, 370×370×1100(mm), 2014



【작품 6】 알파카Ⅱ, ceramic. wood, 370×370×1130(mm), 2014

## 【작품 5】 알파카 I / 【작품 6】 알파카 II

작품크기 : 370×370×1100(mm)/370×370×1130(mm)

작품재료 : ceramic, wood

제작연도 : 2014년

### 제작방법

- 1) 점토로 코일링(coiling)기법을 이용해 전체적인 형태를 만든다.
- 2) 얼굴의 세부적인 묘사를 한 후 뭉게 만든 흙물을 이용해 동물의 털 부분을 붙인다.
- 3) 중간 건조가 되면 묘사를 한 후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킨다,
- 4) 건조된 기물을 가마에서 850℃ 온도로 1차 소성을 한 뒤 2차 소성은 1250℃ 온도에서 산화소성(酸化燒成) 한다.
- 5) 나무판과 각재 크기에 맞게 자른 후 조립한다.
- 6) 표면을 사포로 정리하고 나무 코팅제를 발라 마무리 한다.

### 작품설명

알파카의 초상조각이 받침대 위에 놓여있다. 【작품 5】 와 【작품 6】 은 연작으로 초식동물중 알파카를 소재로 하여 표현하였다. 알파카는 라마와 같이, 야생의 과나코(Guanaco)가 인간에 의해 가축화되어 생겨난 종이다. 두상에서 눈과 눈썹의 표현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대상의 눈, 코, 입, 표정은 인간 표정과 많이 닮아 있어, 사실감 표현을 강조하였다.

받침대는 연극 무대에서 사용하는 문, 창문을 나타내며, 은유적 표현 수단으로 작용한다.



【작품 7】 염소 I , ceramic. wood, 370×370×1120(mm), 2014



【작품 8】 염소Ⅱ, ceramic. wood, 370×370×1100(mm), 2014

## 【작품 7】 염소 I / 【작품 8】 염소 II

작품크기 : 370×370×1120(mm)/370×370×1100(mm)

작품재료 : ceramic, wood

제작연도 : 2014년

### 제작방법

- 1) 점토로 염소의 털 부분과 뿔 부분을 제외한 원형을 만들고, 석고로 외형을 떠낸다.
- 2) 석고 외형에 흙 판을 밀어 넣어 내형을 떠낸다.
- 3) 뿔의 형태를 만든 후 두상에 붙여주고, 뿔게 만든 흙물을 이용해 동물의 털 부분을 붙인 후, 중간 건조가 되면 묘사를 한다.
- 4)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킨다,
- 5) 건조된 기물을 가마에서 850℃ 온도로 1차 소성을 한 뒤 2차 소성은 1250℃ 온도에서 환원소성(還元燒成)한다.
- 6) 나무판과 각재 크기에 맞게 자른 후 표면을 사포로 정리하고 나무 코팅제를 발라 마무리 한다.
- 7) 마무리된 나무를 조립하고 소켓에 전구를 끼워 부착한다.

### 작품설명

염소의 초상조각이 받침대 위에 놓여있다. 【작품 7】 과 【작품 8】 은 연작으로 뿔을 가진 염소의 두상이 좌대위에 놓여있다. 염소는 인간의 원죄를 염소에게 전가하고,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바쳐진다는 뜻의 속죄양 [scapegoat]에서 볼 수 있듯 타자의 죄를 대신한다는 희생양의 의미가 있다. 뿔은 세워져 있지만, 고유 기능은 상실하며 정신적 풍요를 상실한 현대인의

고독을 상징한다.<sup>6)</sup> 또한, 속은 비어 있어, 사회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나타낸다. 반복된 동물 두상은 우리 삶의 원초적 생명성을 찾아보려는 시도이며, 물질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상실된 원시성을 찾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염소 두상이 놓여있는 받침대는 뚜껑 달린 도구의 구조로,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안은 비어 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뿔의 상징의미와 일맥상통한다.

---

6) 이승훈 저서, 「(문학으로 읽는)문화상징사전」, 푸른사상사, 2009, p.412



【작품 9】 라마Ⅱ, ceramic. wood, 500×400×1300(mm), 2014



【작품 10】 알파카Ⅲ, ceramic. wood, 500×400×1300(mm), 2014

## 【작품 9】 라마Ⅱ / 【작품 10】 알파카Ⅲ

작품크기 : 500×400×1300(mm)/ 500×400×1300(mm)/

작품재료 : ceramic, wood

제작연도 : 2014년

### 제작방법

- 1) 점토를 코일링(coiling)기법을 이용해 전체적인 형태를 만든다.
- 2) 얼굴의 세부적인 묘사를 한 후 묽게 만든 흙물을 이용해 동물의 털 부분에 붙인다.
- 3) 중간 건조가 되면 묘사를 하고 완성되면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킨다.
- 4) 건조된 기물을 가마에서 850℃ 온도로 1차 소성을 한 뒤 2차 소성은 1250℃ 온도에서 산화소성(酸化燒成) 한다.
- 5) 나무판과 각재 크기에 맞게 자른 후 조립한 후
- 6) 표면을 사포로 정리하고 나무 코팅제를 발라 마무리 한다.

### 작품설명

라마와 알파카의 초상조각이 받침대 위에 놓여있다. 【작품 9】 과 【작품 10】 은 연작으로, 본인이 도출한 가축동물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목의 기둥 형태가 더욱 강조되어 있다. 바람을 맞고 있는 듯, 온화하고 여유로운 표정은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을 나타낸다. 받침대의 형태는 동물의 네 다리를 나타내며, 신에게 제물을 올리는 제단을 의미한다.



【작품 11】 토끼, ceramic. wood, 370×370×1400(mm), 2014

## 【작품 11】 토끼

작품크기 : 370×370×1400(mm)

작품재료 : ceramic, wood

제작연도 : 2014년

### 제작방법

- 1) 흙으로 토끼의 두상과 손, 발의 형태를 만든다.
- 2) 반 건조가 되면 도구를 이용해 속을 파낸다.
- 3) 뭉개 만든 흙물을 붓을 이용해 동물의 털 부분에 붙인다.
- 4)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킨다,
- 5) 건조된 기물을 가마에서 850℃ 온도로 1차 소성을 한 뒤 2차 소성은 1250℃ 온도에서 환원소성(還元燒成)한다.
- 6) 나무판과 각재 크기에 맞게 자른 후 표면을 사포로 정리하고 나무 코팅제를 발라 마무리 한다.

### 작품설명

토끼의 초상조각이 받침대 위에 놓여있다. 토끼는 우화 속에서 거북이 느리고 우둔함에 반해 재빠르고 교활하다. 이런 특성으로 영리함과 교활함을 상징한다. 그러나 현대 문학에서는 이런 교활함보다는 희생당하는 삶, 선량한 삶을 상징하는 작품이 많다. 또한 여성 원리를 상징하는 동물로 헌신과 희생을 의미한다. 작품에서 토끼의 팔과 다리는 누군가에게 귀 잡혀 들려 있는 듯,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없는, 피동적, 제한적 삶을 나타낸다. 창살(감옥) 형태의 받침대는 동물을 가두는 울타리를 나타내며, 인간을 제한하고 가두는 사회의 틀을 의미한다.

### Ⅲ. 결 론

현대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지만, 인간의 지나친 탐욕으로 인해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삶은 또다시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회의 제도 속에 점점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에 의해 길들고 가축화된 초식동물의 모습과 닮아 있다. 편리한 도시에 모여 살며 풍족한 자원을 확보한 현대인들의 모습은 군집생활을 하며 풍족한 식량을 가지고 있는 초식동물의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본인은 초식동물 중 양 · 염소 · 라마 · 알파카 · 토끼를 선정하고, 그들이 가진 이미지를 도출해내, 현대인의 삶을 상징하며 형상화하였다.

작품의 표현방법으로는

첫째, 초상조각의 두상표현 형식을 빌려 ‘동물 초상조각’으로 표현 하였다.

둘째, 신이 흙으로 인간을 빚어 생명을 불어넣듯이, 흙(점토)과 가마(굽는 행위)를 이용해 정화되고 싶은 인간의 순결한 본성을 말하고자 하였다.

셋째, 받침대에 제단의 의미를 부여하여 인간 삶의 죄를 씻고, 내적 치유의 목적을 두었다. 또한 동물이 지닌 형태와 환경을 암시하며, 무대이미지로 공간연출 하여 작품의 일부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동물과 인간 사회의 현실을 대비하고, 상실된 인간성과 사회에 본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표현한 작품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수동적이고 타 지향적 삶이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인식하고, 사회적 성찰도구가 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작품의 근원을 돌아보게 되었고, 조형적 접근의 연구가 더욱 깊게 이루어 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본인은 계속해서

점토의 표현방법을 연구할 것이며, 더 많은 동물의 형상을 분석하여 작품의 소재로 삼을 것이다. 또한 인간형상과의 접목과, 조명, 음향 등의 사용으로 작품의 영역을 넓혀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및 번역본>

- D.리스먼, 「고독한군중」, 권오석 역, 홍신문화사, 1994
- 케네스C. 데이비스, 「세계의 모든 신화」, 이충호 역, 푸른숲, 2008
- 칼 구스타브 융, 「인간과 상징」, 이윤기 역, 열린책들, 2009
- 모리오카 마사히로, 「무통문명」, 이창익 역, 모멘토, 2005
- 이승훈, 「(문학으로 읽는)문화상징사전」, 푸른사상사, 2009
- 고영복,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2000
-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 R.MESSENT, 「동물대백과 12」 주성필 역, 아카데미서적, 1995

### <기타참조>

- 네이버 어학사전, 지식백과

# **ABSTRACT**

## **A study on the images of herbivores**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 -

**Choi , Eun jin**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is closely related to the extent that it could be called as the root of human civilization. In the history of human, it has been an important strategy to tame animals and control the nature. Humans and animals have maintained the relationship of mutual trade off; human provide animals food and animals provide humans meat and leather. The author felt common images from herbivores around us, which are mostly still such as gentleness, honesty, and stout-hearted. As these images can be found from humans who live their lives in a restrictive manner due to socialization, the author tries to acknowledge negative lives of modern people by expressing the forms of animals in statues. This paper is a study on an exhibition work titled 'odd proposition' representing the reflection of humans found in the images of

herbivores. The study is comprised of three chapters.

The first chapter explains the purpose of the study, detailed contents and the study method. And in the second chapter, the author describes the background of the work and describes the expressions of the work by classifying into three parts; portrait sculpture, ceramic techniques, and pedestal.

And in conclusion, the contents of the main body are summarized and further research tasks on the directions of the work are depicted.